

2012 예비 대학생, 성형 대신 '투명 치아교정' 인기!

기사입력 2011-12-14 08:47 최종수정 2012-09-28 16:47



[박영준 기자] 고3 수험생들에게 고된 1년간의 결실이 드러났다. 11월 치렀던 수능능력시험의 윤곽이 드러나는 지금, 이제는 대학입시를 위해 준비할 때다. 2012년 2월 졸업을 끝으로 더 이상 10대일 수 없는 청소년들에게 '스무살'을 준비할 시기가 온 것이다.

이미 수시 전형으로 학교 입학이 확정된 학생들부터, 넉넉한 점수로 희망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이는 학생들까지 입학 준비에 한창이다. 이 가운데 새롭게 펼쳐질 대학 생활을 위해 외모에 신경을 쓰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성형수술이 대학교 입학선물이라는 말이 들릴 정도로 성형수술이 유행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십대의 끝자락에서 성형수술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 또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10대의 성형수술은 이르다는 판단이다.

때문에 성형수술 대신 자리 잡은 대안이 치과에서 하는 교정 치료다. 직접적인 외모의 변화보다 얼굴 전반적인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교정 치료가 대학을 준비하는 10대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정치료는 치료 기간이 길고, 교정 장치와 철사가 치료기간 동안 불편함을 준다는 단점이 있다. 대학교 입학 2~3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끝내기에는 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입학 후에도 교

정 장치를 착용할 수밖에 없어 이미지 개선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 같은 고민에 부합하는 치료가 바로 '단기 투명교정'이다. 단기 투명교정은 교정 장치와 철사를 사용하지 않아 불편함을 줄인 치료 방법이다. 투명한 플라스틱을 이용해 교정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이에 음식물이 끼거나 철사가 끊어지는 등 교정 치료 도중 불편함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효과적으로 개선했다. 일상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시 일반 교정기보다 편하게 사용 가능하며, 칫솔질이나 치실을 사용하는 순간에도 간편하게 빼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치과교정학 박사 김준헌 원장(강남 화이트스타일치과)은 "투명교정은 교정 장치와 철사를 사용하지 않아 불편함을 줄인 치료 방법입니다. 그러나 심한 골격성 부정교합의 경우엔 메탈 등의 일반 교정을 받아야 하므로, 교정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를 통해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조언했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presslife@bntnews.co.kr

- ▶ **다이어트 성공하려면 "겨울을 노려라!"**
- ▶ **무한도전 2012 달력특집 카메라는 무엇일까?**
- ▶ **김재우 성형고백, 당당히 받는 남성 성형 증가**
- ▶ **송년회 핫 키워드 '핫팬츠' ... 각선미 뽐내려면?**
- ▶ **홍수아 망언 스타 등극 "자꾸 빠지는 걸 어떡해..."**

Copyright © 한국경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etc&oid=015&aid=0002598711>
